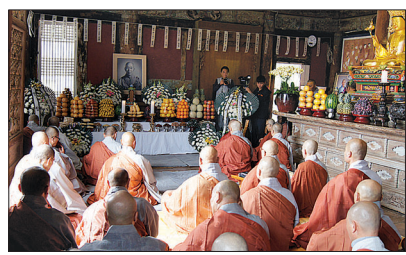


부안 내소사, 해안 대종사 추모제

호남 선맥의 기동인 해안대종사 42주기 추모제가 부안 내소사에서 봉행됐다.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는 4월 25일 대웅보전에서 해안대종사 열반 42주기를 맞아 봉래선원장 철산 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한 대종스님들과 전동회 재가불자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다례제와 추모제를 봉행했다. <사진> 추모제는 생전 해안 스님의 육성법문 청취, 분향, 추모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해안 스님의 문도를 대표한 철산 스님은 “강직했던 스님의 높은 뜻을 잊지 않고 수승한 가르침을 수행의 지표로 삼아 열심히 정진에 매진하자”고 말했다.

전북 부안 출신의 해안 스님은 1914

조동제 전북지사장

증심사 비로전 보수불사 회향

1200여 년 전 통일신라시대 무진주(광주의 옛 이름)의 대항사에는 서민들이 부처님에게 지혜와 공덕을 베푸는 마음을 모아 철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제131호)을 모셨다. 이 불상은 한국불교 격변에 따라 1934년 증심사에 옮겨져 비로전 안에 봉안됐다.



연광 스님은 인사말에서 “우리는 늘 미래를 준비한다. 미래 100년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듯 불교의 불사는 1000년을 내다보고 진행한다”며 “비로자나부처님은 부처님 광명을 상징하듯 빛을 형상한다. 빛고를 광주에 고을의 이름처럼 비로자나부처님 광명이 늘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광주 증심사(주지 연광)는 4월 9일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을 모신 비로전 보수불사를 회향하고, 금동관세음보살 인등점안식을 봉행했다. <사진>

보수불사는 지반이 약해 전각이 틀어지고, 여러 부재의 교체와 필요에 약 2억5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4개월간 실시했다. 또 오래된 인등을 금동관세음보살 인등으로 교체, 새로 봉안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부안 개암사, 산신대제·우금 문화제

신라시대 원효 스님 등 고승대덕이 수행하던 천년고찰 부안 개암사(주지 재안)는 4월 9일 산신대제와 제3회 우금문화제를 개최했다. <사진>



산신대제에 앞서 최근 조성한 천왕문에서는 현판식이 열렸다. 오후 특별무대에서 진행된 ‘제3회 우금 문화예술제’는 사물놀이 공연과 서예가 김병기, 국악인 이용선이 출연하는 산사음악회가 진행됐다. 이외에도 개암동 벚꽃축제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먹거리 장터가 펼쳐졌으며 전통놀이 체험, 문화예술 동아리 공연 등이 진행됐다.

전북불교의 흥흥과 지역발전, 온 국민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산신대제에는 24교구 선운사 원로 재관 스님, 선운사 승가대학원 강주 재연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해 봄맞이 향연을 즐겼다.

이날 재관 스님은 법어에서 “불교를 중심으로 토속신앙과 융합해 불국토를 건설해자는 염원이 담겨있는 산신대제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신심으로 열심히 기도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안 스님은 “전라북도도와 부안군이 발전했으면 하는 염원을 담아 산신대제를 봉행하고 있다”며 “마침 절정을 이루고 있는 벚꽃과 함께 축제를 즐기

조동제 전북지사장

끝 아니기에 행복한 노년, 절에서 찾다

한마음선원 ‘행복한 사계절’ 전국서 이어져

인간생태학을 연구하는 칼 필레머 코넬대 교수는 2004년부터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삶에 대한 다양한 조건과 지혜를 수집하는 연구를 했다. 그리고 삶에서 가장 후회하는 점은 무엇인지 물었다. 가장 많은 대답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걱정하느라 시간 낭비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최근 한마음선원의 한마음과학원이 노인 신도를 대상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이색 프로그램을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이 지난 4월 1일부터 5주 간에 걸쳐 매주 금요일 운영하는 ‘행복한 사계절’이다.

100여 명의 신도들이 동참한 행복한 사계절 프로그램은 △1주차 사바의 인연-그대 행복을 주는 사람(소중한 만남) △2주차 내 인생의 보물찾기-행복하기 △3주차 미워도 다시 한 번(용서와 화해) △4주차 우리 마음, 한마음(한마음이 되는 대화) △5주차 건널 강이 어디 있으랴(의미 찾기)로 구성됐다. 각 주제

노인 위한 5주 과정 프로그램

만남·대화·용서 등 주제로 삶의 의미 찾아가는 교육 열려

6월엔 안양 본원에서 만나

에 맞춰 슬라이드, 명상음악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진행한다.

8일 진행된 2주차 강좌에는 불교의례, 해찬 스님(한마음과학원) 핵심 법문을 시작으로 1교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나무그림 슬라이드)’ ‘내 인생의 보물 찾기’ ‘옛날 영상보며 회상하기’ ‘탑별 이야기’ ‘전체 공유하기’가 열렸다. 이어 2교시 한정선 강사의 지도 아래 ‘소중한 만남’이란 소주제로 ‘내 인생에서 기억의 순간을 마음에 담아 그리기’ ‘의미발표’ ‘내 마음의 의미를 담은 배 띄우기’가 명상음악과 함께 진행됐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송금희 불자는 소감발표를 통해 “지난주 첫 강의 듣고 일주일간 무엇이 행복인지 생각해



4월 8일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에서 열린 ‘행복한 사계절’ 진행 모습. 미술치료가 접목돼 노인 불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게 됐다. 초발심의 마음으로 경전을 읽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혜월 스님은 “신도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돼 감사하다”며 “늘 자신의 삶의 본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사는 ‘노년은 끝이 아니다’는 의미로 재발심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불교수행으로 이를 극복해 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치유적인 교육을 하

기 위한 이번 프로그램은 경험중심, 눈높이 교육, 다양방법(음악·운동·노래·미술 등) 활용, 불교 가르침 접목 등이 큰 특징이다.

한편 행복한 사계절은 2014년 조계종 포교원의 노인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해 당선돼 지난해 11월 울산을 시작으로 12월 진주, 올해 3월 제주, 4월 광주, 대구, 6월 안양 본원 순으로 열리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가족 모두 부처님같이”

완주 안심사, 영유아 수계법회

전북 완주군 대둔산 자락에 자리한 안심사(주지 일연)가 천진불들에게 계를 설했다.

안심사는 정기 가족법회가 열리는 4월 10일 대웅보전에서 ‘영유아 및 불자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올해로 3회째 맞이한 영유아 수계법회는 1인 가정이 증가하면서 가족공동체가 무너지는 현대사회에서 가족수계법회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온 가족이 불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도록 장려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수계법회는 어린이 20명, 성인 40명이 삼귀의계와 오계를 수지하고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생활할 것을 다짐했다.

수계법회에 동참한 어린이들은 2개월 된 영아부터 10살 초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됐다.

일연 스님은 “14년째 진행하고 있는 가족법회 동참가족을 대상으로 해마다 새봄이 시작되는 4월경에 수계법회를 열고 있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비롯해 불교교가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정신적인



안심사 주지 일연 스님이 연비 대신 어린이 이마에 꽃잎을 붙여주고 있다.

재산, 영혼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어른들만 수계할 것이 아니라 자녀, 손자손녀들에게 계를 받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영유아 수계법회 의미를 설명했다.

일연 스님은 연비에 부담을 갖는 어린이들을 위해 어린이 오계를 별도로 지정하고, 연비 대신 꽃잎을 이마에 붙여주는 마정수기 형태의 수계의식을 진행했다.

세 자녀와 부부가 함께 수계법회에 동

전남지역 어르신초청 孝 나눔 잔치 ‘풍성’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불교계 잔치가 광주와 곡성에서 각각 열렸다.

곡성 태안사(주지 각초)는 4월 2일 지역 어르신 700여 명을 초청해 ‘공양미 300석 효도대잔치’를 열었다. 효녀 심청 이야기를 간직한 곡성에서 진행해 더욱 의미를 더한 이날 행사는 오전 순국경축, 호국영령, 선망부묘를 위한 천도재를 시작으로 어르신 의료봉사, 점심공양, 위안공연 및 선물증정, 사진 전시회 등이 펼쳐졌다.

각초 스님은 “참석하신 어르신들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어르신들에게는 공양미 300석의 의미를 담아 지역 특산품 잡곡 3kg 700포를 전달했다.

광주 무등산 동원사(주지 지장)도 4월 6일 동구 지산교공원에서 어르신 400여 명을 초청해 삼계탕을 제공하고 문화공연을 열었다. 자비심행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동원사 어르신 행복잔치’는 올해 4회째를 맞아 사찰의 지역봉사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지장 스님은 “어르신들이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길 바란다”고 인사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p>연등속지 백색 1묵음</p> <p>판매가 6cm 3,500원</p> <p>판매가 8cm 5,000원</p> <p>판매가 10.5cm 6,000원</p> <p>판매가 12cm 8,000원</p>	<p>한지 칼라등지</p> <p>판매가 8cm 27,000원</p> <p>판매가 10.5cm 38,000원</p>	<p>PVC등표 (100매)</p> <p>내지 12,000원</p> <p>집게부착 20,000원</p> <p>• 크기 : 8.5cm×21cm</p>	<p>봉축연꽃리본(100개)</p> <p>일반 18,000원</p> <p>고급 27,000원</p>
<p>일반연일 6,000</p>	<p>바림연일 7,000</p>	<p>한지바림연일 8,000</p>	<p>국산 LED전구(50개) 85,000원</p>

방수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 22cm (50구) @ 65,000
- 25cm (50구) @ 65,000
- 30cm (50구) @ 65,000
- 35cm (50구) @ 70,000
- 40cm (50구) @ 73,000
- 50cm (50구) @ 75,000
- 1 m (50구) @ 90,000
- 2 m (25구) @ 80,000

믿음과 정직의 산실!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연등 할인가

- 바림·공단등(6cm) @ 2,500원 (60개이상)
- 바림·공단등(8cm) @ 3,000원 (30개이상)
- 바림·공단등(10.5cm) @ 6,000원 (16개이상)
- 바림·공단등(13cm) @ 13,000원 (6개이상)
- 바림·공단등(20cm) @ 35,000원 (2개이상)
- 바림·공단등(30cm) @ 90,000원 (1개이상)
- 황금등(6cm) @ 2,700원 (60개이상)
- 황금등(8cm) @ 3,300원 (30개이상)
- 황금등(10.5cm) @ 6,500원 (16개이상)
- 황금등(13cm) @ 15,000원 (6개이상)
- 청도비닐만월등 (100개) 160,000원
- 국산비닐만월등 (100개) 170,000원
- 청도연화만월등 (100개) 220,000원
- 국산장만월등 (100개) 220,000원
- 팔각만월등 (100개) 180,000원
- 비닐오색청사초롱 (100개) 240,000원
- 청도비단점등 (12cm)(100개) 350,000원

금띠지 등표

판매가 800원 할인가 600원 (200개)

• 종류 : 만사대길, 소원성취, 학업성취, 사업성취, 삼재소멸 中 선택.
• 하단부분은 생·이름을 적을 수 있습니다. (3.5cm×70cm)